

2018년 한국문화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
<문화사회학자를 위한 글쓰기 및 연구방법론 워크숍>

글쓰기 1 세션: 사회학 강사의 '대중' 작가 분투기

오찬호(『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저자)

1. 박사보다 작가라는 호칭이 편해졌다

방송에서 호칭 문제로 조울할 때가 있다. 박사와 작가 중 어떤 것이 더 편한지를 묻는데, 나는 작가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여러 책을 출간해서가 아니다. 솔직히 박사라는 호칭이 불편하다. 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구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학자라는 말도 괜한 오해의 불씨라 생각되어(학자는 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음), 나는 '사회학 연구자'라는 애매모호한 동의어를 사용 중이다.

맞다. 나는 연구자가 아니라 전업 작가다. 첫 책을 내고 4년 10개월 동안 아홉 권의 단독 저서를 출간했다. 학술 점수를 1점도 얻을 수 없는 책들이다. 학력차별, 페미니즘, 육아 등 장르도 가리지 않는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학 소개 책, 초등학생에게 '노동'의 의미를 알려주는 책 등 독자층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출판계에서는 내가 쓴 글의 무게라면 '사회학자가 쓴 사회학 책'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한국사회 대표 사회학자의 통찰력' 같은 해괴망측한 수식어로 나를 표현한다. 민망해서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그러니까 무려(!) 학회에서 감히(!) 대중적 글쓰기에 관련된 조언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배운 것을 묵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사회학을 하면서' 먹고살지를 고민하는 것은 돈 안 되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숙명 아니겠는가.

누구를, 그리고 누가. 글을 쓸 때마다 가상의 독자를 설정한다. '누구를' 만족시킬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누가' 내 글을 읽고 변화했으면 좋겠는가? 이 질문을 충족시키는 글을 쓰다 보면 나름 하고 싶은 말이 정리된다. 누군가에게 대리만족이 되면서도 누군가가 머리를 긁적거릴 단초를 제공하는 글이라면 대단하지 않은가. 즉 글은 '누구를' 위로하면서도 '누가' 달라져야 할지를 함께 짚을 때 의미가 크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다. '글'이 유일한 밥벌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이 엄중한 학회 자리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2. 사회학적 대중저서 집필하기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 대의 자화상>은 내 박사논문을 토대로 집필했다. 수많은 에세이를 읽었고 틈만 나면 인터뷰를 했다. 젊고 운이 좋았기에 가능했다.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곁엔 늘 대학생들이, 내 책상엔 그들이 쓴 에세이들이 가득했다. 게다가 여러 지원사업에 선정된 운까지 있는 시기라서

연구비 문제도 나름 자유로웠다. (연구 프로포절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작가의 소질이 있도다!) 여러 대학에서 유사한 주제를 강의에서 다루니 유사한 맥락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포화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더불어 연구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 그리고 논문이 나왔고 경향신문에 짙막하게 소개된 내용을 보고 여러 출판사에서 단행본 작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물론 그때는 최초 의뢰를 받고 '기적이 일어난 줄' 알고 바로 계약을 했다.

1년 4개월이 걸렸다. 처음에는 딱딱한 문장을 편안한 느낌으로 다듬는 것이 작업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착오였다. 출판사는 완전히 다시 쓰기를 원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책이라는 것이 저서의 단독 작업물이 아니라,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나아가 독자와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집필의 속도가 붙었다. (당시 송호근의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와 리차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를 많이 참조.) 그런 식으로 여러 책을 작업했고 이 과정에서 느꼈던 '사회학적 대중저서 집필'의 소회를 밝혀본다.

● 대중을 외면할 배짱은 없어야 한다

흔히 대중을 전문가보다 '낮은' 수준의 차이에서 이해한다. 하지만 대중의 일희일비에 신경을 곤두서야 하는 내게 대중은 간단히 정의되지 않는다. 내 책은 교수도 읽고 학생도 읽는다. 오십 대도 읽고 이십 대도 읽는다. 사회학을 아는 사람도 읽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읽는다. 어떤 논의든 의미가 있다면 책 자체를 존중하는 사람은 고마운 독자도 만나지만 요즘 세상에 독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책을 펼치는 사람도 내게는 독자다. 대중의 정의가 카오스인 세계에서 책의 리뷰는 극과 극이다. 피상적 분석에 그쳤다는 혹평과 시대의 키워드를 통찰력 있게 제시했다는 호평을 동시에 받는다. 누구는 '도무지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잡한 글'이라면서 흠잡기에 바쁘고 누구는 '사회학이 왜 보통사람들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준 책'이라며 극찬한다. '어쩌라고?'라는 비아냥거림과 '강한 울림을 받았다'는 성찰이 각각의 논지를 응원하는 담론을 발판 삼아 부유한다. 맥락과 어긋난 반응을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대중작가에게 그리 속 편한 행동이 허락되진 않는다.

대중강연을 가면 대중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느낀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 논문 발표장에서 경영학 전공자가 '시장이 곧 사회다!'를 외치는 모습, 혹은 박사논문을 소개하는 자리에 중학생이 '제대로 좀 하라'면서 어이없는 훈수를 두는 모습 같은 건데, 이런 일은 다반사다. 지방의 도서관 강연을 가면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태극기 부대의 일원이 아닐까 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 자신을 지역유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강의 내내 졸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일 먼저 손을 드는 낙으로 산다. 내 책과 상관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맞설 수 없다. 대중에게 다가간 이상,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중 속에는 온갖 부류가 모여 있다.

작가 생활 초기에는 그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감동으로도 벅찼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내 책에 사인을 받고 사진 같이 찍으면 영광이라면서 겸연쩍게 부탁을 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닌가. 그래서 '팬'에게 더 충실하고자 사회학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비판의 날을 다듬어 설정된 목표물에 마구잡이로 찌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선혈이 낭자할수록 나를 좋아하

맥락
구독을
" " (2021)
사회
대중
지역유지

는 사람들은 흥분했다.

하지만 작가로 밥 먹고 살 태도는 아니었다. 왜? 풋! 이 세상에 사회학을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회학을 희소한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 희소한 수준이 어떤지 우리네 일상 속에서 확인할 때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중작가의 방향에 공감하고 작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크기는 작가의 전공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균을 낸다면 사회학은 꼴찌임에 분명하다. 그러니 사회학의 향기를 버리지 않으면서 대중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편을 늘려야 한다. 무슨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다. 사회학으로 통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기분은 좋을지언정 내 가족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과 무관하니까. 말이 안 통할 사람들에게 아부하자는 말이 아니다. 회색지대에 발을 딛지 않고선 시간강사 이상의 돈을 벌기 어렵다. 단순히 판매부수의 문제가 아니다. 강연 시장에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강연 안 다니고 오직 인세로만 먹고사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매번 '사정이 좋지 못해서'라는 설명이 따라붙는 우리 편만의 강연 의뢰를 수락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향기는 유지하되 때깔은 지우기

“아까 헤게모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강연을 듣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람이 질의를 한다. 평생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가치에 길들여져 살아왔고 또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는 오십 대의 여성이었다. '젠더'의 뜻 정도를 논의한 초보적인 수준의 강연이었지만 헤게모니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었다.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데올로기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강연장의 시간은 강의실과는 다르니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와중에 이 대중들 속에 있을 유식한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보고는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있었다.

'헤게모니' 사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첫 책을 집필하면서, 그러니까 박사논문을 대중서적으로 탈바꿈시킬 때 출판사로부터 부단히 들었던 말이 바로 이런 단어를 독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자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나열하고 여기에 손대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는 아집에 빠질 때가 많다. 때로는 단어 사용의 적합성을 놓고 3자가 보기에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논쟁을 즐기기도 한다. 마치 그게 자신의 학문적 위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착이 심하다.

하지만 사회학에 바탕을 둔 '대중' 책을 읽는 자는 누가 논문을 많이 읽었다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대중들은 자신의 걸어온 길에서는 다 전문가다. 이들이 몰랐던 학문의 '맛'을 보려는 것은, 누군가의 이론과 주장이 자신의 삶과 괴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자들의 중요한 습관이 논문들'간'의 경합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기존의 연구는 이런 점의 한계가 있다'는 진부한 표현이 등장하면 책을 덮는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변화를 모색할 좋은 논문 하나의 친절한 설명을 원한다. 혹시 사회학자 아니라고 할까 봐 하는 우려에서, 현학적 느낌을 지닌 용어를 슬쩍슬쩍 사용하는 버릇을 없애는 것은 그것의 필요성을 떠나 대중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대중작가는 사람을 가려가며 독자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대중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것은 '사회학의 향기는 유지하되 때깔을 벗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시 나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 논문은 '발견'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신의 발견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다고 포장하고, 기존의 발견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논문들이 그대로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이 꽤 있는데 전혀 '대중'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대중서가 목표가 아니라면 문제는 아니다.) 인터뷰 전문이 장황하게 실리고 사례와 해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내용이 전개된다. 마치 '사회학자의 해석을 보여주마!' 같은 껄기가 느껴질 정도다.

내가 만난 대중들은 누군가의 똑똑함에 경외감을 느낄 이유로 자신이 몰랐던 영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길 원한다. 당시에는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의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고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하여 흠여버렸던 조각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신이 다시 해석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었구나'는 위로를 받은 독자는 그 해석을 도와준 학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개인의 일상을 사회라는 구조에 연결시키는 사회학의 향기는 이를 유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일상을 괜히 쥐어짜지만 이해 가능한 난해한 개념을 등장시켜 사회학의 때깔을 보여주려는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떠나) 대중작가로서의 확장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납득될 만한 사례 덕택에, 독자 스스로 사회학의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책은 '다시' 펼쳐질 수 있다. 누군가의 해석이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면 사회학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더 희소한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1~2천 부 겨우 팔려도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면, 그건 무지한 대중의 문제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자유다만 먹고사는 데 지장 생길 출판사가 이를 허락할지는 모르겠다.

예시가 효과를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향기는 빠르게 퍼져야 한다. 대중들은 의미가 같은 여러 사례를 듣고자 책을 펴지 않는다. 그걸 하염없이 듣고 있다가 향기는 냄새가 된다. 학문적 논문이 중요시 여기는 균형 잡힌 사례로는 한계가 있다. 0과 1 사이에서 '0.5'를 찾는 것이 연구에서는 중요하지만 대중작가는 0.5의 경우를 발견한 후 이를 좀 더 1로 가깝게 보이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재미있고 무게감 강한 사례를 고의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 이상의 힘을 지닌 사례야지만 독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가 사회학이라는 렌즈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로 표현되어 '극단적 사례를 모았다'는 평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하고, 0.5를 나열해서 '내 일상이라 감흥이 없다'는 미지근한 반응이 등장하는 것을 대중작가는 경계해야 한다.

3. 그런데 경쟁력은 있는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는 교보문고 2014년도 전체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7위였을 정도로 나름 팔린 책이다. 전국 70여 개 대학에서 토론 주제로 선정된 책이니 대중에게 노출이 많이 된 책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한 50만 부는 팔린 줄 아는데, 실제 판매는 2만 5천 부 정도다. 그것도 5년 동안. 5년간 3천 만 원 정도의 인세를 받은 걸 주변에서는 '기적',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사회 분야 출판시장의 현실이다. '사회학'으로 글을 쓰며 먹고사는 건 언감생심이다. 10만 부도 아니고 1만 부 팔면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니, 그만큼 책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개인의 문제일까?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유리하지 않게 흐르고 있다. 내가 <2015년 후기 사회학대회>에서 간략하게 발표한 바 있듯이, 사회학 효용은 시효가 만료되

고 있다. 사회학은 불평등을 들춰내기에 의미를 지녔는데, 불평등이 워낙 심해지니 이제는 바보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잘 알고 있다. '노오오오오력', '흙수저' 등의 신조어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학자의 개념 정리가 없어도, 사회에 '짓눌린' 자신을 평범한 개인들이 잘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사회학이 사회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더 큰 변화는 이런 '불안한 사회'가 모두를 작가를 꿈꾸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글 쓰기 강좌가 대유행이고 관련 책들이 즐비하다. 작가 과잉의 시대다.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 대 환영이다. 독자들은 어느 때보다 자신이 몰랐던 영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게 되었다. 사회학자나 르포작가 등 3자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또 불필요한 외부 해석도 곁들여서 읽을 필요가 없다. 글 쓰는 의사, 판사, 검사, 교사 나아가 버스 운전사, 대리운전기사까지 심지어 아파트 관리소장도 등장했다. 이들이 표현하는 '현장'의 힘은 대단하다. 사회학적 글쓰기가 과연 이들보다 새로운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불안한 사회에서 독자들의 책 읽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SNS에는 교보문고와 망고라떼 해시태그(#)가 동시에 등장한다. 서점이 쉽터가 되니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은 대개 '#힐링'이나 '#감성충만'이라는 연관 해시태그와 어우러져 사용된다. 1) 좋게 말하면 책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갈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은 책을 통해 감성 그 이상의 수확을 원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소개하는 검증(?)된 상품에만 지갑을 연다. 인플루언서 역시 자신을 믿어주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도서 편식이 심하다. 솔직히 피 냄새를 숨길 수 없는 사회학적 향기로 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다. 찢러본들, 이미 이 영역은 사회학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어서 '배배 꼬인 작가의 울부짖음' 같은 리뷰만이 남을 뿐이다.

4. 답답하지만, 그래도 도전하시라!

→ 노동자이러라 관계, 그들은 대리의이인 취업자의인생

대중작가로 살면서 사회학자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여러 오해와 마주한다. 지금은 덜한 편이지만 교수들 중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학 박사들은 다 학문 후속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상식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는 황당한 일들이 정말 많았다. 처음에는 나도 돈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책을 출간하면서 나 스스로 작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여전히 답답한 건 '길 위의 인문학자',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진짜 사회학자' 같은 수식어에 내가 제일 낮간지러워하고 있는데, 이를 과잉 해석하는 학계의 '풍'을 접할 때다. 풍이라는 건 일부 고지식한 교수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염시킨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밥벌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까면서' 지적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다. 사회학과 대중의 조합을 발견할 때마다 흥분해서 자신이 병아리 감별사마냥 '저게 무슨 사회학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남기는 자들이 있다. 베버가 표현했듯이 '직업으로서의' 학자들끼리 지지고 볶을 일을 왜 학문공동체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는 내게 하는 것일까? 대중작가는 사회학을 '대중화 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학자 버전을 대중 버전으로 바꾸어 소통의 범위를 넓히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런 시야가 학문공동체 토대를 푸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교수가 되기 위해'

1) 이 지점은 '사회학적 참여관찰과 글쓰기'(2018년 2학기, 서강대) 강의에서 진행된 서점 참여관찰에 참여한 학생의 표현이다.

노력하고, '되지 않더라도' 연구자의 자세로 사는 의미를 강조하다가 그런 강박에 빠지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문 후속세대의 단가는 낮게 책정될 뿐이다. 그러니 월 200~250만 정도의 연구소 자리, 강의전담교원 등의 자리가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마치 로또라도 당첨되는 듯한 '특별한 의미'로 권해진다.

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싫었고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책을 계속 출간했다. 운도 좋았고 이 작업들을 버텨낼 나의 체력도 나쁘지 않았다. 몇 년의 고난이 누적되자, 드디어 작년부터는 '내가 하기 싫은 연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일단 박사 머릿수가 채워져야 돌아가는 용역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인세, 외부 강연료, 칼럼 및 추천사 등 원고료로 어떻게든 가족부양 중이다. 처음에는 부산에 교통비 없이 20만 원 강연료를 받으며 가기도 했다. 이후 책도 더 많이 알려지고 또 결정적으로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다 보니 (← 이게 운이 아니면 무엇인가?) 강연료 단가가 좀 높아졌다. 그 덕에 책을 몇 권은 더 출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기 개발서이나 나오는 말이라 짹짹하지만, 내가 이 짓으로 먹고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 '글을 써 보는 게 어때?'라고 속삭이는 우주의 기운이 감지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술에 걸려들었으면 좋겠다.